

# 영광 지산풍력발전소 시험가동 돌입

## 650가구 매일 쓸 수 있는 3MW급 규모

## 국내 최대 용량 143억 들여 작년말 완공

풍력발전시설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용량인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일원 영광지산풍력발전소가 28일부터 본격적인 전력생산을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영광군은 지산풍력발전소는 물론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영광이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산풍력발전소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 총사업비 143억4000만원(정부 78억원, 민간 65억4000만원)을 투입해 같은 해 10월 말에 완공됐다. 풍력발전기 타워 높이는 80m, 날

개에 해당하는 블레이드 길이가 44m에 달하는 초대형으로, 매일 일반 가정 650가구가 쓸 수 있는 3MW급이다. 이 발전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1년 간 인증기간을 거친 후 발전 전량에 납품된다.

풍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에서 설계 및 제작을 맡았으며, 동시발전에서 풍향계측기 및 실증단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풍력산업이 군에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및 미래성장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주)과 (주)대한그린에너지는 지난 28일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염소마을에서



28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영광지산풍력발전소. 높이 80m, 날개에 해당하는 블레이드 길이가 44m에 달하는 초대형 발전기들로 구성된 이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우리나라 최대인 3MW급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주민 80여명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정기호 영광군수는 “지역발전 위해 공사 중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완공하도록 협조해 준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군의

전략산업인 풍력발전사업이 미래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져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산업과 더불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집중 육성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대형 전복·소라 찾습니다” 완도군 내년 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

“2014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전시용 대형 전복, 소라 등을 찾습니다.”

완도군은 내년 4월 11~5월 11일까지 개최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전시할 큰 전복, 소라 등 대형 패류를 수집 및 구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대형 전복(15cm 이상), 소라, 굴, 가리비, 홍합 등 대형 패류와 고동류, 성게, 산호 등이다. 군은

대형 패류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포획하는 어민이 연락하면 상담 후 구매할 방침이다. 기증자는 전시관에 이름이 게시된다. 수집한 대형 전복 등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전복연구센터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박람회 패류 생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긴급 해저 수색단’을 편성, 직접 수집에도 나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해남 북일 오리축사 건립 주민 반발 크다 “郡 허가 불허·사업주 철회” 강력 요구

해남군 북일면에 추진중인 종오리 장 신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주민들은 해남군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북일면에 오리축사 건립은 불가하며 해남군의 허가 불허와 사업주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북일면에 추진중인 종오리 사업은 지난 2010년 말 사업주 전모씨가 북일면 흥촌리 산41번지 2만4825㎡ 부지에 10여억원을 들여 추진했으나 당시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전씨가 지난해 7월 해남군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전씨는 “축사 관계법, 해남군조례 등 축사 신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해남군의 불허가 처분이 결정된다면 행정소송등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겠지만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점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신안 ‘임자해변 해안사구’ 친환경 생태복원

### 군, 500여곳 정밀조사...지역축제 연계 구상

신안군이 지구온난화에 대비 대비 길이 12km, 폭 600m의 임자해변 해안사구를 친환경 생태복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임자 대광해변 사구는 빗물에 의한 지하수를 함양한 담수저장기능으로 현재 대규모 대과 밭으로 개간 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바다와 육지생태계의 생태적 접이대로 사구 동·식물의

서식처와 자연경관을 형성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곳 모래 성봉 및 오염도 검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각종 중금속 오염평가 결과 미국 EPA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안사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안군은 해변 일부구간에 대해 기존 콘크리트 울벽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친

환경 자연형제방의 자연스런 해안선 형태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광해변 해안사구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500여개의 해변 및 해안사구의 정밀조사를 통해 복원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안사구의 복원으로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안전은 물론, 민어축제와 톨립축제, 스마대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진도군의 설 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있는 서울 코엑스 내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 상품전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진도군이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설맞이 상품전 ‘대상’ 수상 서울 코엑스...다양한 상품·친절도 관람객 호평 받아

진도군의 설 상품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설 맞이 명절 상품전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은 29일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 상품전’에서 현장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특산물의 다양성과 친절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지난 16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서울 코엑스 등 8개 지역에서 상품전 등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서 2억원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전북

### 순창 태이친환경영농조합 판로 개척 순조 올해 서울대에 쌀 300t 납품기로

순창군 금과면 태이친환경영농조합이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이하 서울대 생활)에 올 한해 쌀 300t을 납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00t보다 100t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쌀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까지 서울대 생활에 유통 가능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 생활 관계자는 “서울대에 서 자체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까지 포함해 3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납품 합의는 순창군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전국에 뛰어난 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납품은 순창군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강 100세 브랜드를 활용해 납품의 물고를 텃는데 그 의미가 크다. 당초 지난해 200t 납품계약 당시 장수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이정재 교수 연구팀이 건강 100세 순창 브랜드를 활용한 제안으로 납품이 적극 이뤄진 것.

실제로 서울대 관계자도 “건강 100세 순창이라는 이미지가 높아 타지역 농산물에 비해 건강한 식품, 안전한 식품이라는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숙주 군수는 “서울대 생활과의 납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클린 순창, 건강100세 순창 브랜드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순창군은 앞으로 2013년 농림부 창조지역사업에서 선정된 안심공동체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도시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농가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전북



고창군은 지난 25일 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지방중소기업을 해외로’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초청, 관내 수출기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을 실시했다. (고창군 제공)

## 부안군 미화원 부정 채용 논란 체력검정 없이 5분면점으로 끝내 탈락자들 ‘밀실인사’ 주장

군 환경미화원(환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탈락자들이 부정한 선상, 전문성, 태도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6명이 최종 선발됐다. 그러나 부안군이 지난 11일 최종합격자 6명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자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안군의 채용방식과 면접심사가 사실상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밀실인사와 커넥션인사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른 시군과는 달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 검정이 없이 5분 면접만으로 채용을 결정해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면접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김모씨는 “명색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면접심사인데 불과 5분동안 이루어

진 대화 몇마디로 지원자의 능력과 인성을 모두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면접심사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완전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탈락자 박모씨는 “부안군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체력테스트를 거친다거나 일반상식필기시험을 치루게하는 전형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밀실인사와 금권인사,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인 권위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안군은 “환경분야 기간제 근로자 선발에 대해 인사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는 29일 “오는 3월부터 가족 모두가 행복하는 사회,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주간교육(4개월간), 야간교육(3개월간), 주말교육(1개월간)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접수는 오는 2월12일부터 4일간 여성문화센터에서 가능하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이번 평생교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능력개발과 여성전문인력 양성, 직장인과 평생교육 저변층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교육 목표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모두 52과목을 운영, 899명이 참여했다.

### 군산시, 주거개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로 인한 석면 비산에 의한 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억 400만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슬레이트 지붕 85동을 철거하기로 하고, 오는 2월15일

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지붕 개량 비용은 제외된다. /군산=박금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농공민,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정읍사무소는 “오는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소분류해 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재포장 취급자 인증의 의무화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확대에 따라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6월2일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시, 빈집 리모델링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

전주시는 29일 “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중인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모자갓정, 독거노인, 미혼모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후 5

년 동안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건설업체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다. 입주대상자 및 관리는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맡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전북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직영 전환 3월말부터 도교육청서 맡아

10년 넘게 민간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전북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오는 3월말부터 도교육청이 직영한다.

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문화회관은 29일 “지난해 4월부터 민간 위탁이 끝난 수영장의 보수가 거의 끝남에 따라 3월말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회관은 4월부터 이 수영장을 전주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육프로그램 장

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송일섭 관장은 “직영을 하면 5억여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지만 초등생 중심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면 아이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전과 오후를 제외한 새벽과 저녁 시간에는 일반에게 개방한다. 2000년도에 개장된 이 수영장은 25m 6개 레인이 설치돼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